



이슬람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The Understanding of Islamophobia an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

저자 (Authors)	정승현 Seung Hyun (Nathan) Chung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09, 9-43(35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85
APA Style	정승현 (2016). 이슬람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i>Muslim-Christian Encounter</i> , 9(2), 9-43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이슬람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정승현*

I. 시작하는 말

II. 이슬람포비아의 이해

1. 정황
2. 정의(定意)
3. 다양성의 획일화
4. 소외와 차별, 그리고 대중매체
5. 정리

III. 한국에서의 이슬람포비아

1. 특징
2. 선교학적 성찰

IV. 맺는 말

*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교수

1. 시작하는 말

2015년 텍사스에서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아흐메드 모하메드(Ahmed Mohamed)는 집에서 시계를 만들었다. 평소에 과학자가 되기 원했던 그는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활용하여 꽤 ‘근사한’ 탁상시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 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에 그 시계를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칭찬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날 오후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유는 모하메드가 그 시계를 이용해 폭탄테러를 감행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불과 14세에 불과했지만, 무슬림이었던 그가 만든 시계는 몇몇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사제폭탄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고, 이 사건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모하메드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였다. 미국에는 그와 같이 과학자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그 시계를 백악관으로 가져오도록 말하였다.¹¹

위의 사건은 오늘날 서구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에 기인한다. 2001년 9/11 사건이후 이 현상은 알카에다와 IS와 같이 이슬람에 근거를 둔 테러집단의 연일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에 의해서 오늘날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CNN은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하였던 테러사건을 목표로 정리하였다.² 한 달 동안 적어도 19번 이상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570명이 사망하였다. 이들에 한 번 이상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테러는 당대에 하나의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이

1 www.cnn.com/2015/10/19/politics/ahmed-mohamed-white-house-visit/index.html (2016년 8월 1일 접속).

2 www.cnn.com/2016/07/15/world/30-days-of-terror/index.html (2016년 8월 1일 접속).

슬라모포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럽에서는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이 9/11 사건 훨씬 이전부터 나타났다. 처음에는 무슬림이 구체적인 대상이 되기보다는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이 전반적으로 유럽사회에 있었다. 유럽은 인구의 고령화, 출생률의 감소,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하였다.³ 그로 인해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무슬림들이 대규모로 서유럽 국가들에 유입되었다. 유럽인들은 외국인들이 적절한 인구수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 그들을 유럽 각국의 지도자 위치에 세우는 것은 주저한다. 유럽사회는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과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선적으로 자국민보호주의(nativism)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⁴

이슬라모포비아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지속적 인무슬림 인구의 상승세와 수쿠크 금융, 할랄 단지 조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계속 들려오는 테러의 소식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부름 받고 보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편향된 일부 대중매체에 편승하여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을 갖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종교인을 경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은 먼저 이슬라모포비아의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슬라모포비아는 절대로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3 Liz Fekete. *A Suitable Enemy: Racism, Migration and Islamophobia in Europe* (London: Pluto Press, 2009), 6.

4 Ibid, 9.

두려워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해 선교학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하셨던 말씀은 오늘날 이슬람 선교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고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라모포비아를 극복하고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슬라모포비아의 이해

1. 정황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⁵ 버밍엄대학교 교수인 세자리(Jocelyne Cesari)에 의하면, 1922년 디네트(Étienne Dinet)가 서유럽에서 무슬림들이 대면하는 차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⁶ 그러나 사실 이슬라모포비아는 역사적으로 이미 십자군전쟁 때부터 시작되어 식민주의를 거쳐 여러 정황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영국에서 ‘영국 무슬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부터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무슬림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유입되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그다지 부

5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ris Allen, *Islamophobia* (Burlington, VT: Ashgate, 2010), 5-7을 보라.

6 Jocelyne Cesari, “Islamophobia in the West: A Comparison betwe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John L. Esposito and Ibrahim Kalin., eds. *Islamophobia: The Challenge of Plur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1.

각되지 않았다. 이유는 그 첫 세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국가로서 구별하였다. 즉 무슬림보다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출신 등으로 서로를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 그리고 후손들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국가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는 갈수록 퇴색되어 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국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그 정체성은 혼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출신 국가보다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짓게하는 요인이 되었다.⁷ 아시아인의 정체성보다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가운데 이슬라모포비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7년 인종평등을 위한 영국의 두뇌집단인 러니미드 트러스트(The Runnymede Trust)가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를 출간하면서부터이다.⁸ 1968년에 설립되어 영국 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는 러니미드는 이슬라모포비아를 “이슬람을 향한 이유 없는 적개심”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적개심은 무슬림 개인과 공동체를 대항하여 불공정한 차별을 실제적으로 가져온다.”고 말한다.⁹

러니미드는 이슬람에 관한 두 상반되는 관점이 영국에 존재함을 8개 범주로 나누어서 비교하면서 이슬라모포비아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¹⁰ 이슬람에 대해 닫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획일적이고, 일반사회에서 구별되어 있으며, 야만적이고, 성차별주의와 폭력과 그리고 심지어 테러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슬림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차별이 생기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한다.

7 C. Allen. *Islamophobia*, 7-9.

8 The Runnymede Trust.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UK: The Runnymede Trust, 1997).

9 Ibid, 4.

10 Ibid, 5.

범주	이슬람에 대해 닫힌 시각	이슬람에 대해 열린 시각
1. 획일성/다양성	이슬람을 단일 세력권, 고정적,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 무반응하는 것으로 인식.	이슬람을 다양하고 진보적이며, 내부적인 차이와 더불어 논의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인식.
2. 분리/교류	이슬람을 분리되고 구별된 것으로 인식-(a) 다른 문화와 어떠한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b) 다른 문화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으며 (c)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이슬람을 다른 종교와 문화와 더불어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a) 특정한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공유하고 (b)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c) 그것들을 풍요롭게 한다.
3. 열등함/상이함	이슬람을 서구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야만적, 비이성적, 원시적, 성차별주의.	이슬람은 독특하게 구별되지만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
4. 적/동반자	이슬람은 폭력적, 공격적, 위협적이고, 테러를 지지하며, '문명의 충돌'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	이슬람을 공동 사업이나 공유되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동반자로 인식.
5. 교묘함/신실함	이슬람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실익을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여김.	이슬람은 그 추종들이 신실하게 실천하는 참된 종교적 신앙으로 여김.
6. 서구의 비판을 거부/고려	'서구'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거부.	'서구'와 다른 문화들의 비판을 고려하고 논의한다.
7. 차별대우를 방어/비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은 무슬림들이 차별대우 받고 주류(主流)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이용되었다.	이슬람과 하는 논의와 불일치가 무슬림의 차별과 배척에 대항하는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8. 이슬라모포비아를 인정/거부	반-무슬림적인 적대감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슬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들이 부정확하고 불공평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평가가 필요하다.

이 러니미드의 분석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 책이 발표된 것이 1997년임을 감안한다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2001년 9/11 사건을 비롯한 본격적인 테러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무슬람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극단적인 인종차별

이었다. 러니미드가 2000년에 발표한 파레크보고서(Parekh Report)는 반-무슬림 인종차별주의를 “현대 유럽에서 문화적인 적개심의 가장 심각한 형태 중의 하나라고 표현한다.”¹¹

둘째, 이러한 정황가운데 2001년 9/11 테러(2,996명 사망, 6,000명 이상 부상),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기차역 테러(200명 사망, 2,000명 이상 부상), 그리고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의 자살폭탄 테러(56명 사망, 700명 이상 부상) 등은 더 많은 일반인들이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을 확고히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반인륜적 테러는 기존의 무슬림들에게 행해지던 인종차별을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테러를 감행하거나 동조 혹은 묵인하는 사람이므로 차별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테러와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영국 무슬림은 테러리스트이거나 이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었고,¹²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무슬림의 입장은 매우 곤고해지게 되었다.

2. 정의(定意)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해 가장 종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은 버밍엄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알렌(Chris Allen)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만약 누구라도 오직 무슬림이라는(Muslim-ness) 이유만으로 생각로나 실제적으로 편견, 차별 혹은 폭력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슬라모포비아이다”¹³라고 정의하면서 러니미드가 논의한 이슬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한층 발전시켰다.

먼저, 그는 올바른 이슬라모포비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슬람과

11 The Runnymede Trust. *The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 (London: Profile Books, 2000), 60.

12 C. Allen, *Islamophobia*, 86.

13 Ibid, 79.

무슬림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무슬림을 증오하는 것이 언제나 이슬람을 거부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역사적인 이슬람의 과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도 오늘날의 성실한 무슬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캔자스주립대학교의 교수인 지프지(Sabri Ciftci)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슬람과 실제 인간인 무슬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지프지는 구체적이고 방대한 통계를 통하여,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슬람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지만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임을 제시하였다.¹⁵

둘째, 알렌은 유럽의 국가들이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황에 따라 이슬라모포비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¹⁶ 벨기에에서 이슬라모포비아는 “인종차별의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인데 반해, 이웃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는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이슬라모포비아는 “무슬림들의 관심, 합법적 권리, 그리고 종교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상과 행동을 고수하는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무슬림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슬라모포비아를 이해한다. 이런 맥락에서 알렌은 하나의 완벽한 이슬라모포비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그 사회의 정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알렌에 의하면, 이슬라모포비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¹⁷ 첫째, 이슬라모포비아는 이데올로기이다. 오늘날의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무려 지난 14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오늘의 이슬라모포비아와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과거부터 이슬라모포비아가 존재하였고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둘째, 이슬라모포비아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공 영역에까지 과급된다. 즉 이

14 Ibid, 74-5.

15 Sabri Ciftci, “Islamophobia and Threat Perceptions: Explaining Anti-Muslim Sentiment in the West,”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2, no. 3(2012), 306-7.

16 Ibid, 133-34.

17 Ibid, 188-90.

슬라모포비아는 개인이나 그룹의 성향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일반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소외, 차별, 편견, 그리고 폭력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스웨덴 예셰핑대학교(Jönköping University)의 교수인 보렐(Klas Borell)도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¹⁸ 그는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력한 편견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에서부터 건물 파손과 같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별히 9/11 사건과 같은 테러는 이데올로기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이 사건이후 영국에서는 74%의 무슬림들이 공개적인 비방을 당하였다. 스웨덴에서는 90% 이상의 평범한 무슬림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절반에 가까운 45%의 무슬림은 이유 없이 욕설을 직접적으로 들어야만 했다. 워싱턴DC에 소재하는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교수인 니머(Mohamed Nimer)는 FBI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06년 미국에서 무슬림에 대한 증오범죄는 10년 전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고 말하였다.¹⁹

문제는 이러한 이슬라모포비아에 의한 행동은 무슬림들로 하여 서구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니머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인도네시아는 61%에서 30%로, 요르단은 25%에서 15%로, 그리고 터키에서는 30%에서 12%로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²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미감정은 또 다른 테러를 계획하게 하고 그로인해 또 다른 증오범죄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에 대해서 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교(University of Waikato)의 교수인 프랫(Douglas Pratt)은 이슬라모포비

18 Klas Borell, "When Is the Time to Hate? A Research Review on the Impact of Dramatic Events on Islamophobia and Islamophobic Hate Crimes in Europe,"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6, no. 4(2015), 411.

19 Mohamed Nimer, "Islamophobia and Anti-Americanism: Measurements, Dynamics, and Consequences," In J. Esposito and I. Kalin., *Islamophobia*, 79-80.

20 Ibid., 81.

아 그 자체가 종교의 극단주의 형태의 한 가지이며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²¹

이슬라모포비아의 정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에 의해 포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첫째, 그것은 역사적이다. 이슬람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슬라모포비아도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사고 안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존재해 왔다. 둘째, 이슬라모포비아는 이데올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 셋째, 이슬라모포비아는 보편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모습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이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의 정황에 따라 이슬라모포비아의 지역적 특성은 계속 변화한다.

3. 획일성

이슬라모포비아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획일성이다. 이슬람과 무슬림의 다양성을 거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과 무슬림은 현장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한다. 공일주는 마시(Joshua Massey)의 연구²²와 자신의 중동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의 이혼 가지 다른 입장이 있음을 설명한다.²³ 그 관점들 안에는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을 사랑하지만 평화로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풀러신학교 명예교수인 우드베리(Dudley Woodberry)는 이슬람 안에 존재

21 Douglas Pratt, "Islamophobia as Reactive Co-Radicalization,"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 26, no. 2(2015), 206.

22 Joshua Massey, "God's Amazing Diversity in Drawing Muslims to Christ,"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vol. 17, no. 1(2001), 5-14.

23 공일주, "무슬림과의 의사소통 전략," 『복음과 선교』 제10호(2008), 11-5.

하는 무슬림의 관점들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원리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신흥종교운동, 그리고 민족주의의 일곱 가지로 정리한다.²⁴ 한 명의 무슬림이 일평생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세계화의 시대에 많은 무슬림들은 일생을 통해 다양한 관점들을 경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 이슬람과 무슬림의 다양성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1) 유럽과 미국의 상이함

세자리(Jocelyne Cesari)는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다.²⁵ 유럽의 무슬림들은 많은 경우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많은 무슬림들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식민지에서 유입되었는데,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였고 영국은 서아시아였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터키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고 네덜란드는 모로코와 터키에서 유입되었다. EUMC(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와 OECD의 통계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실업률이 높고, 학력은 낮으며,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은 무슬림들이 아니고 주로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무슬림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고립되어 지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미국의 일반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인의 평균 대학교 졸업률이 27%인데 반해 미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평균대학 졸업률은 무려 58%에 이르고 일 년 수입도 일반 미국인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 J. Dudley Woodberry. "Missiologiical Issues in the Encounter with Emerging Islam," *Missiology* vol.28, no.1(2000), 21-5.

25 J. Cesari. "Islamophobia in the West," 24-7.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교수인 시리옥(Andrew Shryock)도 세 자리의 분석과 유사하게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그는 정치적인 사안에 좀 더 집중하였다.²⁶ 여러 비유럽 국가들로부터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이주하였고, 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슬라모포비아는 유럽의 주류 정치에서 특별히 우익 정당들의 정책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인 법률로서 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의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금하는 법이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정당의 정책이나 법률보다는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모스크 파손, 무슬림을 향한 증오범죄, 방송, 무슬림 공동체를 감시, 혹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이슬라모포비아를 드러낸다. 간략하게 차이점을 정리하면, 유럽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법적으로 차별을 받는 반면,²⁷ 미국에 있는 무슬림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삶이 통합되고 안정적이다.

2) 중동지역 무슬림들 간의 갈등

중동이슬람 전문가인 황디모데는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 분열과 충돌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슬람이 서구세계와 충돌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는 특별히 IS와 연관해서 이슬람 내부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26 Andrew Shryock. *Islamophobia/Islamophili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2.
 27 같은 유럽 국가일지라도 나라별로 사안이 상이하다. 이에 관해서는 J. Esposito and I. Kalin. *Islamophobia*와 Andrew Shryock. *Islamophobia/Islamophilia*, 그리고 George Morgan and Scott Poynting. *Global Islamophobia: Muslims and Moral Panic in the West* (Burlington, VT: Ashgate, 2012)을 보라.

반서구일뿐 아니라, 이슬람 내에서도 매우 배타적이면서 이슬람의 근본주의 이념 실현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시리아의 내전(시아 계열의 정부군과 순니 계열의 민병대), 리비아의 내전(정부군과 근본주의 계열의 반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란 중심의 시아 계열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순니 계열의 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큰 균열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이슬람 세계를 단일화된 움마 공동체로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더 깊이 깔려있는 분쟁의 인자가 이슬람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²⁸

사실 이슬람은 초창기부터 순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내부적인 충돌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다. 소수의 순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통치하는 이라크와 급진적인 시아파가 정권을 쟁취한 이란과의 역사적인 분쟁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들은 같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종파간의 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사한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슬림이 자행하는 폭력, 테러, 혹은 전쟁은 비 무슬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7월 5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서 있었던 테러이다.²⁹ 메디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무슬림들에게 메카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 순례(Hajj) 전이나 마친 후, 혹은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열흘 동안에 메디나에 소재하는 예언자 모스크(Prophet's Mosque)를 방문한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28 황디모테. “중동 이슬람 세계의 최근 변화와 기독교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2014), 111-12.

29 www.cnn.com/2016/07/05/asia/ramadan-violence/index.html과 www.cnn.com/2016/07/04/opinions/medina-attack-opinion-haroon-moghul/index.html (2016년 9월 1일 접속).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자살을 한 사람이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배후 세력으로는 역시 IS가 지목되고 있다. 많은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성지인 메디나에서 그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더 나아가서 CNN은 IS가 저지른 테러의 대부분은 사실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도하였다.³⁰ 2016년 7월 5일 라마단 마지막 날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바그다드의 복잡한 시장에서 200명이 죽었고, 이스탄불 공항에서 44명이 사망했으며, 방글라데시 다카(Dhaka)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2015년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난 국가였고,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시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주요 테러사건들이 일어났다. IS는 다른 종파의 무슬림, 서구와 연관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무슬림은 모두 테러목표로 삼는다.

호주와 뉴욕에 거점을 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IEP(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매년 Global Terrorism Index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2000년부터 15년 동안 테러로 인해 사망한 서구인은 전체 사망자 수의 2.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01년에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사건을 제한다면 0.5%이다.³¹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목표는 서구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슬림 자신들인 것이다.

3) 한국 무슬림의 다양성

명지대학교 조희선 교수는 이미 2010년에 무슬림들이 다양한 권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다루었다. 또한 그들은 이주노동자를 비롯하

30 www.cnn.com/videos/world/2016/07/14/isis-victims-muslims-clarissa-ward-explainer-orig-sfc.cnn (2016년 9월 1일 접속).

31 economicsandpeace.org/wp-content/uploads/2015/11/Global-Terrorism-Index-2015.pdf, 5 (2016년 9월 1일 접속).

여 결혼, 유학생, 투자이민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³² 국내에 무슬림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같은 대학 안정국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의 무슬림들이 종파별로 분리하지 않았으나 2013년 초 시아 무슬림들의 연합체가 출현함으로써 본격적인 종파 분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5년 현재 약 3,600명 정도의 시아파 무슬림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들은 국내에 시아파 무슬림의 모임인 KICEA(Korea Islamic Culture Echange Association)을 2013년 3월 17일에 창설하였다. 서울대 박사과정 출신 이란인 마흐디 카시프(Mahdi Kashef)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특별한 행사에 순니 계열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이슬람중앙회는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다. KICEA는 인천, 부산, 그리고 대구에 모임이 있고, 2014년 11월 명동에서 있었던 적십자의 헌혈행사에 70명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순니파와 차별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³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분명히 국적과 문화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주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의 무슬림을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 모두를 꾸란의 특정구절에 입각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로 간주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32 조희선.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2(2010), 110-11.

33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3집 (2015), 172-74.

4. 소외와 차별, 그리고 대중매체

최근에 테러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잡지사가 테러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이래, 같은 해에만 10월까지 7번의 크고 작은 테러가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다.³⁴ 그리고 11월에는 파리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테러가 일어났다. 바타클랑 극장에서만 89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하여 무려 130명이 참변을 당하였고, 368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7월 14일에는 세계적인 휴양지 니스해변에서 86명이 사망하고 43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간단히 기독교를 향한 이슬람의 테러로 해석할 수 있고,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을 정당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2015년 1월의 샤를리 에브도와 11월 파리 테러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터지는 프랑스의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의 끔찍한 범행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무슬림을 경계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들은 오직 종교로 인해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지타운대학교의 교수인 에스포시토(John L. Esposito)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한다.

북아프리카의 아랍사람들이 사는 프랑스의 소외된 지역에서 있었던 폭동은 빈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의 저항이라기보다는 “무슬림”으로서 묘사된다. 런던에서 무함마드를 손에 폭탄을 든 테러리스트로 표현한 덴마크 시사만화에 저항하면서 보이콧하는 무슬림들 그리고 프랑스와 터키, 그리고 덴마크에서 히잡(hijab) 때문에 갈등하는 무슬림들을, 시민권과 자유의 문제로(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옷을 입는 여성의 권리) 다루기보다

34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어...왜 또 프랑스인가,”
www.hankookilbo.com/v/47e0f0f37b2c499c91db07ac8c0c111d (2016년 9월 1일 접속).

는 전적으로 “종교적 이슈”로만 간주한다. 유럽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간단히 규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와 이슈들은 “무슬림의 이슈”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진다.³⁵

유럽의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당하여도 그것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무슬림들의 요청은 즉각적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비밀비재한 것이다.³⁶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 1월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7.5%로 약 4,710,000명 정도이다.³⁷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광의 30년’으로 불리는 경제 호황기를 맞아 알제리와 모로코 등 과거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수십만 명이 프랑스로 건너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민자의 후손들은 프랑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게 되었다.³⁸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겪는 소외와 차별은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젊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2005년 파리 북부 폭동사건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다.

에스포시토가 지적한대로, 이런 비극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 대중매체들은 그 테러를 행한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외쳤던 꾸란의 한 두 구절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즉시 그들이 IS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난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즉 언론은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추적하기 보다는 종교적인 관점만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행태는 문제를 해결하기

35 J. Esposito and I. Kalin. *Islamophobia*, xxvi.

36 J. Cesari. “Islamophobia in the West,” 39.

37 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7/19/5-facts-about-the-muslim-population-in-europe/ (2016년 9월 5일 접속).

38 조일준. “자유·평등·박애’ 프랑스가 왜 테러 표적이 됐나?” 『한겨레신문』,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52549.html (2016년 9월 1일 접속).

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해서 더욱 배타적이 되고 그들은 갈수록 일반 사회에서 소외계층이 되어 간다. 결국 미디어는 계속해서 무슬림을 계도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³⁹

리버풀대학교 교수인 무사비(Leon Moosavi)는 무슬림이 영국에서 얼마만큼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보여준다.⁴⁰ 무사비는 맨체스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개종자 37명을 인터뷰하였다. 그들의 배경은 다양하였다. 그중에 27명은 백인이었다. 그 백인들은 영국 사회에서 ‘white’로서 각종 혜택을 누렸다. 무슬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사비는 백인들이 무슬림이 된 이후로부터는 자신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일반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순전한 ‘white’가 아니고 ‘not-quite-white’ 혹은 심지어 ‘non-white’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유만으로, 개종한 백인들은 영국에서 무슬림으로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white’가 아니라 ‘white Paki’라고 조롱당한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백인 여학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학교에 히잡을 쓰고 간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친구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라모포비아는 폭력과 같이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미묘하게(subtle Islamophobia)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⁴¹ 그것은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친인척과의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우에 무슬림으로 개종한 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39 Stéphane Lathion. “Fight Islamophobia in Europe? Less Islam and Muslims and More Citizenship!”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6, no.2(2015), 136.

40 Leon Moosavi. “The Racialization of Muslim Converts in Britain and Their Experiences of Islamophobia.” *Critical Sociology* vol.41, no.1(2015), 43-4.

41 Ibid., 48.

이와 같이 이슬라모포비아에 의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차별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분노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급기야는 테러를 감행하게 한다. 그러나 그보다 이슬라모포비아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슬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⁴²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제점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향해 행해지는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며 서구세계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게 된다. 아울러 대중매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특정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초국가적인 움마(ummah)에 더욱 깊은 연대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

5. 정리

II부를 종합하면, 이슬라모포비아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고 안에 있었던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면서 일반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불평등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며, 사회에서 일반 무슬림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기도 했다. 그리고 흔히 중오범죄의 형태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은 이슬람과 무슬림이 지역과 역사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획일화한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이며 테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무슬림들의 소외와 차별을 묵인하게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의 사고를 조종하기도(manipulate) 한다.

연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을 때, 귀국을 몇 달 앞두고 대략적으로 열 채 정도의 집들이 모여 있는 한 작은 단지 내에서 살았다. 그 단지는 전기

42 J. Esposito and I. Kalin. *Islamophobia*, 16.

세를 각 가구별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에게 지불하면 그가 한 꺼번에 전체 단지의 요금을 전기회사에 입금시켰다. 그 관리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장로교인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난 후 그를 더 이상 그 단지 내에서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수년 동안 중간에서 전기세를 착복한 것이 드러났고 그 이유로 그는 사직하게 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밝히고 고발한 사람은 무슬림이었고, 그 중간에서 손실을 변상한 사람도 무슬림이었으며, 새로 고용된 중간 관리자도 무슬림이었다.

이것은 절대로 무슬림이 그리스도인보다 경건하고 윤리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태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무슬림도 매우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사실은 적어도 당시 그 사건을 수습하였던 무슬림들을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무슬림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폭력성에 주목하는 것은 마치 무슬림들이 서구인들은 모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편견인 것이다.

III. 한국에서의 이슬라모포비아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에 대한 통계는 개인과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안정국 교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을 구분하여 계수하였다. 국내로 이주한 무슬림이 135,585명이고, 2014년도까지 결혼한 이주 무슬림은 5,553명이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무슬림 2,703명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국내에 약 145,000명의 외국 출신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 출신 무슬림 약 35,000여 명과 무슬림 2세대 7,000여 명을 합하면 대략 20만 명

www.kci.go.kr

에 육박하는 무슬림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⁴³

한국에서는 수쿠르 법이나 할랄 식품으로 홍역을 치루기는 했지만, 특정한 법률로 무슬림들의 삶을 제한하거나 모스크에 방화하는 것과 같은 과격한 행동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슬라모포비아의 강도가 세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무슬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이슬라모포비아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특징

김상근 교수는 두 가지 사건을 두고 한국에서 이슬라모포비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2008년으로 주장한다.⁴⁴ 그는 두 가지 사건에 주목했는데, 첫째는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단기 선교단의 피랍사건이고,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적 편향이다. 그는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궁지에 몰려있던 기독교가 2008년부터 ‘이슬라모포비아’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슬라포비아는 “타당성이 결여된 일부 보수/근본주의 진영의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에 가까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⁴⁵

한국이슬람연구소의 권지윤 박사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이슬라모포비아의 주된 내용을 결혼을 포함한 다와(Dawah)와 CIA보고서, 그리고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요약한다.⁴⁶

무슬림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이슬람 확장을 획책하고

43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제21집(2009), 173-76.

44 김상근. “이슬라포비아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선교신학』 제21집(2009), 173-76.

45 Ibid, 188.

46 임스데만 선교사는 이 보고서의 출처가 CIA와 무관하다고 말하였다. 임스데만. “변화하는 이슬람 세계와 이에 대한 기독교 선교적 조망,”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4, no.1(2011), 147(34).

있으며, 이슬람의 8단계 세계정복 전략이 설명되어있는 CIA보고서가 존재하며, 한국에 15만 명의 무슬림들이 잠입하여 한국 사회를 이슬람화하려는 포교전략(폭력적 방법 포함)을 진행 중이다. 또는 유럽의 이슬람화가 한국 사회에 재현될 것이다.⁴⁷

한편,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인 이일 변호사는 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에 퍼져있는 이슬라모포비아 정서에 대해서 말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에 퍼져있는 이슬라모포비아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던 한국인이 다문화로 변화가는 과정에 겪는 진통으로 이해하였다.

기존의 무슬림혐오는 소위 ‘공격적인 무슬림 국내 선교전략의 존재’등을 전제한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양상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반다문화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오던 외국인혐오, 난민혐오의 기존 양상이 ‘무슬림난민들이 한국에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무슬림혐오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⁸

이러한 이슬라모포비아의 경향에 대해서 이미 국내의 학자들은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⁴⁹ 먼저, 이주 무슬림들을 과도하게 ‘다와’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물론 무슬림은 국내에서 다양한 다와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종교인 이

47 권지윤. “한국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접근법,”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1(2014), 26.

48 이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2016), 94.

49 다와에 대한 여러 연구 중에서, 권지윤. “이슬람 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 무슬림의 다와 활동에 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1(2010), 9-42과 안신. “이슬람 다와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슬람 선교의 기초와 한국 이슬람의 문서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1(2010), 43-65등을 참조하라.

슬람은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와 활동을 한다. 그러나 직장을 구해도, 결혼을 해도, 학업을 해도, 잠재적으로 무슬림들은 모두 다와를 위해 한국에 왔다는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관점이 형성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김영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 관련 기독교인들의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에서 강조되고 있는 불균형적인 지식이다. 이슬람에 대한 선택적 지식과 이슬람의 확장사와 연결하고, 그것을 현대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슬림과의 갈등에 접목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을 무슬림에 대한 관점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유럽의 무슬림 집단과의 갈등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 교회의 시선을 주목시킨다. ...이주 무슬림과의 결혼은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며...경제적 이유이든 종교적 이유이든 사람의 만남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마련이다.⁵⁰

II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다양성을 획일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특정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다와'의 관점으로 그들을 예의주시한다. 9/11 사건이후로 유럽에서는 무슬림의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송도영 교수는 이태원을 출입하는 무슬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먼저 중앙사원 때문이고 둘째는 까다로운 정착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각지의 사원과 기도 처소들에서 점차 외국인 무슬림들이 출신 국적별로나 종파별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⁵¹

50 김영남, "이주 무슬림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선교적 고찰," 『선교신학』 제21집(2009), 219.

51 송도영, "국내 무슬림 이주자들이 생활영역과 초국적 성격—서울 이태원 출입 무슬림의 사례," 『한

또한 학계에서도 국내에 대거 이주하여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슬림들을 개별집단으로 인식하여 연구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⁵²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학교의 BK21플러스 사업팀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이슬람과 아랍어권 학자들은 국내 이슬람과 무슬림을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첫째, 한국 내의 이슬람 공동체 및 네트워크, 둘째, 한국 내의 이슬람 금융, 셋째, 이슬람권 이주민의 사회 및 문화 적응연구, 넷째, 이슬람 종교 및 문화연구,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 사회·문화와의 갈등연구이다.⁵³ 이러한 연구들은 이슬라모포비아 관점과는 다르게 한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선교학적 함의

웨스턴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Sydney) 교수이며 스위스의 이슬람 연구기관인 GRIS(Group of Researchers on Islam in Switzerland)에 소속되어 있는 라티옹(Stéphane Lathion)은 이슬라모포비아가 생성되는 이유가 비무슬림뿐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강조한다.⁵⁴ 그리고 에스포시토는 테러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혹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⁵⁵ 그리스도인이 이슬라모포비아가 있는 것처럼, 사실 무슬림들도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서구인들을 향해 근대화의 실패와 세속화의 책임을 지우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국이슬람학회논총』 제24-2집(2014), 146.

52 조희선.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93-4.

53 이소영·누르보스. "한국 이슬람권 이주민의 갈등분석—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5-1집(2014), 441-43.

54 S. Lathion. "Fight Islamophobia in Europe?" 136.

55 J. Esposito and I. Kalin. *Islamophobia*, xxxiii.

이슬라모포비아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차별과 배척은 무슬림들이 서구에서 받는 그것에 비해 절대로 약하지 않다. 비단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 박해는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오직 무슬림들만이 서구 국가들에서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다는 논리의 이슬라모포비아 논의는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계속해서 이슬라모포비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슬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박해를 모름도 아니요, 무슬림들의 침묵성과 이중적인 자세를 간과하고 있음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라모포비아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라모포비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그리스도인 모두는 무슬림을 향해 이슬라모포비아 관점 대신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 무슬림의 사례를 연구한 박성수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향하는 젊은 층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을 개종자들은 교회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 불분명한 기독교 신학과 교리, 그리고 타종교를 향한 극단적 배타주의라고 주장한다.”⁵⁶ 이러한 잘못

56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향하는가?” 『선교신학』 제38집(2015), 193.

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으로 이슬람과 무슬림을 비판하는 것은 일반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둘째, 국내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슬림을 한국 사회에서 계도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슬라모포비아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개인이나 그룹의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카야(Serdar Kaya)는 국가 단위로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여러 중요한 통계와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한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그룹의 크기가 크면 그들은 사회의 다른 그룹과 교류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지낸다. 그러나 무슬림 그룹이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정착 국가에서 주류 그룹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유럽의 경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 조사 결과는 분명히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슬림들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일 때 그들을 계도화시키지 말고 양지로 이끌어서 함께 교류해야 한다. 그들을 선교대상이나 경계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균등하게 대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많은 무슬림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불만이 쌓인 것을 테러를 통해 폭발시킨 것이다. 국내의 이주 무슬림들도 “이미 그들 고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인종적, 종교적 계도(ghetto)를 형성하고 있다.”⁵⁸ 지금이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셋째, 해외에서 무슬림을 선교하는 것은 현장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하다.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운 교수는 “서구의 오리

57 Serdar Kaya. "Islamophobia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Multilevel Study,"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5, no.3(2015), 459.

58 권지윤. "이슬람 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 무슬림의 다와 활동에 대한 연구," 28.

엔탈리즘 관점에서 무슬림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편협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 전도에 해로운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서구 기독교가 실패했던 승리주의 혹은 우월주의에 입각한 십자군식의 선교를 되풀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교회와 기독교의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편견과 오해를 강화시키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만 키워가도록 할뿐이다.”⁵⁹

우리의 선교학적 논의는 일시적인 단기 선교가 아니라 반드시 장기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이슬람 현장에서 이웃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으로 과연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며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다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 선교는 그들과의 만남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IV. 맺는 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요 4:39).

요한복음 4장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적인 관계, 남자와 여자의 폐쇄적인 사회관습, 다섯 번 이혼한 여인 등 1세기의 팔레스타인 문화는 전

59 김성운,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6, no.1(2013), 126-7

혀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푸신 것이 아니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기 원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심으로 복음은 종교, 사회,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파되었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벽이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 낙타전도법, 내부자운동, 상황화 등 많은 선교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이론들은 분명히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이슬람 현장에서 헌신하면서 얻게 된 통찰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 선교를 위해 현장에서 도출된 이론들은 반드시 귀한 자료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4장은 일련의 선교학 이론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고 바로 그 대화에서는 어떠한 적대감이나 혐오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종교와 관습을 뛰어 넘어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슬람 현장에서 무슬림에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두려워하고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것 대신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무슬림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이유로 인해 이슬라모포비아 관점이 정당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 낯선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요 4:7).

● 참고문헌

- 공일주. “무슬림과의 의사소통 전략.” 『복음과 선교』 제10집(2008): 11-68.
- 권지훈. “한국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접근법.”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1(2014): 9-57.
- _____. “이슬람 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 무슬림의 다와 활동에 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1(2010): 9-42.
- _____. “한국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2, no.2(2009): 53-76.
- 김동문. “중동 선교의 학문적 접근에 대한 반성: ‘이슬라모포비아’를 넘어서는 만남의 선교로.” 『선교와 신학』 제20집(2007): 39-72.
- 김마가. “반목과 충돌의 시대 속의 이슬람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8, no.1(2015): 89-123.
- 김상근.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선교신학』 제21집(2009): 171-196.
- 김성운.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6, no.1(2013): 123-149.
- 김성익. “이슬람의 비무슬림을 향한 다와(Da'wah)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86-1집(2013): 243-268.
- 김아영. “우리시대의 다양한 무슬림 공동체: 침묵하는 다수(Silenced Majority)?”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6, no.2(2013): 35-67.
- 김영남. “이주 무슬림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선교적 고찰.” 『선교신학』 제21집(2009): 197-231.
- 김종일.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갈등 연구.” 『선교와 신학』 제38집(2016): 47-85.
-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향하는가?” 『선교신학』 제38집(2015): 171-199.
- 서동찬. “현대의 폭력적 사태와 관련하여 문명충돌론에 대한 제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8, no.1(2015): 37-88.
- 송도영. “국내 무슬림 이주자들이 생활영역과 초국적 성격—서울 이태원 출입 무슬

- 림의 사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4-2집(2014): 113-153.
- 안신. “이슬람 다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슬람 선교의 기초와 한국 이슬람의 문서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1(2010): 43-65.
- _____. “유럽 이슬람 공동체의 최근 동향과 전망: 서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2, no.2(2009): 19-51.
-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3집(2015): 155-181.
- 오현기.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유럽 무슬림에 관한 연구: 독일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제8집(2007): 174-192.
- 이경희. “호주 무슬림 이해: 이슬라모포비아 현상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1(2014): 153-173.
- 이소영·누르보손. “한국 이슬람권 이주민의 갈등분석—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5-1집(2014): 437-471.
- 이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2016): 79-104.
- 이정순.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이슬람 개종 요인 연구.” 『복음과 선교』 제16집(2011), 71-114.
- 이현모. “변화하는 선교 환경과 이슬람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4, no.1(2011): 95-122.
- 임스데반. “변화하는 이슬람 세계와 이에 대한 기독교 선교적 조망.”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4, no.1(2011): 123-156.
- 임태순. “무슬림 전도방법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6, no.2(2013): 95-119.
- 정마태.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흐름(1900-2012)과 한국적 대안.”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6, no.1(2013): 49-80.
- _____. “한국교회와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6, no.2(2013): 121-142.
- 장훈태. “중동의 상황 변화와 선교적 적용.” 『선교신학』 제28집(2011), 205-234.
- 조희선.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2(2010): 91-116.

한권식. “한국 거주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회심 연구: 인도네시아, 이란 무슬림의 사례.”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2014): 63-106.

황디모데. “중동 이슬람 세계의 최근 변화와 기독교 선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2014): 107-133.

Allen, Chris. *Islamophobia*. Burlington, VT: Ashgate, 2010.

Esposito, John L. and Ibrahim Kalin., eds. *Islamophobia: The Challenge of Plur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Fekete, Liz. *A Suitable Enemy: Racism, Migration and Islamophobia in Europe*. London: Pluto Press, 2009.

Goodwin, Stephen R. *World Christianity in Muslim Encounter: Essays in Memory of David A. Kerr*(2). New York: Continuum, 2009.

Morgan, George and Scott Poynting. *Global Islamophobia: Muslims and Moral Panic in the West*. Burlington, VT: Ashgate, 2012.

Shryock, Andrew. *Islamophobia/Islamophili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The Runnymede Trust. *The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 London: Profile Books, 2000.

_____.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UK: The Runnymede Trust, 1997.

Tyrer, David. *The Politics of Islamophobia: Race, Power and Fantasy*. London: Pluto Press, 2013.

Borell, Klas. “When Is the Time to Hate? A Research Review on the Impact of Dramatic Events on Islamophobia and Islamophobic Hate Crimes in Europe.”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6, no.4(2015): 409-421.

Cesari, Jocelyne. “Islamophobia in the West: A Comparison betwe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John L. Esposito and Ibrahim Kalin., eds. *Islamophobia: The Challenge of Plur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1-43.

Ciftci, Sabri. “Islamophobia and Threat Perceptions: Explaining Anti-Muslim Sentiment in the West.”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2(2012/3), 292-309.

- Halafoff, Anna. "Countering Islamophobia: Muslim Participation in Multifaith Networks."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2, no.4(2011): 451-467.
- Kaya, Serdar. "Islamophobia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Multilevel Study."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35, no.2(2015): 450-465.
- Lathion, Stéphane. "Fight Islamophobia in Europe? Less Islam and Muslims and More Citizenship!"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6, no.2(2015): 133-144.
- Massey, Joshua. "God's Amazing Diversity in Drawing Muslims to Christ."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vol.17, no.1(2015): 5-14.
- Moosavi, Leon. "The Racialization of Muslim Converts in Britain and Their Experiences of Islamophobia." *Critical Sociology* vol.41, no.1(2015): 41-56.
- Nimer, Mohamed. "Islamophobia and Anti-Americanism: Measurements, Dynamics, and Consequences." In John L. Esposito and Ibrahim Kalin., eds. *Islamophobia: The Challenge of Plur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77-92.
- Pratt, Douglas. "Islamophobia as Reactive Co-Radicalization."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6, no.2(2015): 205-218.
- _____. "Islamophobia: Ignorance, Imagination, Identity and Interaction."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2, no.4(2011): 379-389.
- Woodberry, J. Dudley. "Missiologial Issues in the Encounter with Emerging Islam." *Missiology* vol.28, no.1(2000): 19-34.
- 연합뉴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어...왜 또 프랑스인가."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v/47e0f37b2c499c91db07ac8c0c111d (2016년 9월 1일 접속).
- 전승훈. "무슬림 분노 키운 파리 뒷골목... 테러의 온상으로." 『동아일보』. news.donga.com/rel/3/all/20150118/69152512/1 (2016년 9월 1일 접속).
- 조일준. "자유 · 평등 · 박애 프랑스가 왜 테러 표적이 됐나?" 『한겨레신문』.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52549.html (2016년 9월 1일 접속).
- 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7/19/5-facts-about-the-muslim-population-in-europe/ (2016년 9월 5일 접속).

- www.cnn.com/2015/10/19/politics/ahmed-mohamed-white-house-visit/index.html (2016년 8월 1일 접속).
- www.cnn.com/2016/07/15/world/30-days-of-terror/index.html (2016년 8월 1일 접속).
- www.cnn.com/2016/07/05/asia/ramadan-violence/index.html (2016년 9월 1일 접속).
- www.cnn.com/2016/07/04/opinions/medina-attack-opinion-haroon-moghul/index.html (2016년 9월 1일 접속).
- www.cnn.com/videos/world/2016/07/14/isis-victims-muslims-clarissa-ward-explainer-orig-sfc.cnn (2016년 9월 1일 접속).
- economicsandpeace.org/wp-content/uploads/2015/11/Global-Terrorism-Index-2015.pdf, 5 (2016년 9월 1일 접속).

●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Islamophobia an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

Seung Hyun (Nathan) Chung

The prejudice of Islamophobia did not suddenly appear after the terrors of 9/11 2001. It has had long and deep historical roots. In November 1997, the Runnymede Report,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launched in the UK launched discussions in public and studies in academic level as well. According to Runnymede, “Islamophobia refers to unfounded hostility towards Islam. It refers also to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such hostility in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to the exclusion of Muslims from mainstream political and social affairs.”

Chris Allen insists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components of Islamophobia; 1) Islamophobia is an ideology, 2) it operates and func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through a vast range of different actions, and 3) it performs as exclusionary practices against Islam and Muslim, including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vandalism and so on.

One of prejudices of Islamophobia is monolithic view towards Islam and Muslim, although there are huge diversities among them. Muslims in Europe and the US have lived in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ettings. Terrorists based on Islam like IS kill many Muslim themselves. In South Korea, the diversity of Muslims is growing as the population of them is increasing caused by the influx of immigrated labor population.

Like the case of tragic accidents in France in 2015, most media only focus on religion of people who committed terror or massacre rather than deal with fundamental issues like discrimination which Muslims have to face daily lives. They are excluded and marginalized in a wider society of Europe.

The sense of Islamophobia is increasing in Korea in relation to growing

immigrant workers, terrors in the globe, and prejudice of the mass media. Since Christians experiences the unconditional love and grace of Jesus Christ, we need to view them in different ways compared to ordinary people. Like Jesus who talked to a woman in Samaria called Sychar, Christians should talk with them without prejudice so that they may get an opportunity to be introduced to the Kingdom of God.

- Key words: Islamophobia, Monolithic, Racism, exclusion, Ghetto.
- 주제어 : 이슬라모포비아, 획일적, 인종차별, 소외, 게토.